

영광 굴비·경북 사과 구매 행렬...상생장터 '문전성시'



'2019 영호남문화대축전' 이 지난 25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막한 가운데 행사 현장을 찾은 많은 시민이 영·호남 상생장터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매일신문= 우태욱 기자woo@imaeil.com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행사장 일대 호남 22개·영남 29개 부스 운영 '공감 콘서트' 등 문화행사도 다양

영·호남 지역농가들이 올 한해 정성껏 기른 '정정 농수 특산물'이 지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열린 대구시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행사장 일대 '2019 영호남 상생장터'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은 영호남 '상생장터'로 변신했다. 마치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점이 됐던 화계장터처럼, 영·호남 시민들이 서로의 특산물을 함께 맛보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 것이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서은수 전남도 농업축산식품국장 등은 영·호남 상생장터 홍보관과 각 부스를 돌며 운영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가공 수준, 재배 품목을 비교 분석했다.

호남 22개, 영남지역 29개로 꾸러진 영·호남 농수특산물 부스는 열기로 가득했다. 영·호남의 대표 농수산품이 품질과 맛이 뛰어나고 시중가 보다 훨씬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입소문도 인기에 한몫했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선별한 경북 과수통합브랜드 'daily' (데일리) 사과를 판매한 대구경북농능협 부스 앞에는 첫 날부터 구매행렬이 줄을 이었다.

영광군 판매 부스 앞에 마련된 대형 굴비는 대구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각 부스마다 마련된 향토 먹거



"영호남 농산물 애용해 주세요" 김여송(오른쪽 두번째) 광주일보 사장, 이승호 대구시경제부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등이 영·호남 농특산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 시식·시음 코너는 전라도의 넉넉한 인심을 맛보려는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과일, 미역, 김부각, 젓갈 등 농산물 및 다양한 가공품도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호남 생활예술과 청소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공연도 펼쳐졌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포크가수들이 펼치는 '공감 콘서트', 청소년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영호남 청춘버스킹', 약기 연주,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 '영호남 생활예술문화인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밖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도전 기네스'와 특산물 경매코너인 '깜짝 경매 SHOW', 도전 50곡, 림보 게임 등이 진행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영·호남 문화대축전 개막 날 행사장을 찾은 이철인(66·대구 수성구)씨는 "대구에서 보기 힘든 전라도 젓갈을 맛볼 수 있어 좋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영·호남 문화대축전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먹음직한 청도 반시 경북 청도군 관계자들이 청도 반시를 나눠주며 청도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문화대축전 시작합니다" 2019 영호남 문화대축전 개막식에서 천내초등학교 합창단과 신명여중 닌타동아리가 화합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